東亞日報
發行所 京城市太平通 (京城日報社內) 東亞日報社

米蘇撤兵이 先決條件

自立能力은 歷史와 傳統이 證明

朝鮮問題에 對한 뉴욕타임스 論旨

現在極東에잇어서 難問題의 하나는 朝鮮이다 朝鮮이 어찌하여 米蘇兩軍에 依하야 分割占領되엇는가 하는데 對하야는 美國國務省도 蘇聯外務當局도 아모런 說明이 없엇다 朝鮮問題를 圓滿히 解決한다면 그것은 聯合國의 善意의 表徵이될것이며 善意를 證하야서만 亞細亞民族도 發가 비로소 그들의 將來에 對한 保障을 어들것이어늘 그러한 方策이 朝鮮에서 具體化될수잇는데도 不拘하고 아직도 解決되지못한것은 甚히 遺憾된 일이다 只今 亞細亞에서 世界의 三大强國이 相互接觸하고잇는곳은 朝鮮박게 없다. 世界人口의 半以上을 占有하고잇는 亞細亞에 對하야 米蘇兩國이 그 共同目的을 表示하며 따라서 連帶責任을 선선히 遂行한다면 亞細亞全局에 實로 重且大한 바잇을것이다 來될 影響結果란것은 實로 米蘇兩國으로볼때 이 千載一遇의 機會는 朝鮮問題에 달렷다고 할것이다。그러하건만 于今것 兩國間에는 何等 統一點도 잇는것갓지 않다

米蘇兩軍은 相互親近도 없이 三十八度를 隔하야 對峙하고잇다 兩國間에 어떤 協議가잇는것도 갓지않다 米國國務省에서는 朝鮮이 한 問題거리로 不遠 表面化할것으로 豫想하고잇는 모양인데 勿論 그러케되어야 할것이다。

漢城에서온 本社 特派員 리촤드 존스톤氏의 報告를 보든지 臨時政府初代大統領으로 只今은 一個市民資格으로 入國하야 國事에 奔忙한 李承晩博士가 그 親知들에게 보낸 私信을 通하야 들은바에 依하야도 알수잇거니와 朝鮮사람들은 近者 政治的 統一을 圖謀하야 急速度의 進展態勢를 보이고잇다는것을 알수잇다。그들은 적어도 米國務省이나 蘇外務當局보다는 더 熱意가 잇는줄안다

이제 滯日本支配者들이 거이다 本土로 追放되고 없거늘 어째서 米蘇兩軍이 곳 撤兵을하고 그 작은나라를 分斷한것을 原狀으로 돌려주지못하는지 딱한일이다。李博士의 말과같이 朝鮮사람은 적어도 民族自決을하여볼 機會는 充分하가저보아도 맛당하다고생각한다。

朝鮮은 그 歷史를 상고하여 보드라도 自主自立을 못하엿다는 前例가업는나라다 朝鮮의 傳統이 이것을 證明한다 朝鮮의 歷史的弱點은 다만 그 國土가 작고 隣近强國보다 弱하엿다는것뿐이다 米國은 일즉 一九○五年에 日本을 선불리 放任해둠으로말마암아 朝鮮을 背叛한일이잇섯다 米國은 이번에 이 背信을 하기爲하야 全力을 다하여야할것이며 그러함으로써 朝鮮에 한 機會를주지안으면 안될것이다

美, 자바動亂注視

【華府廿一日發共立】자바의 끈칠줄모르는 戰鬪를 美國務省當局은 漸次重大하게되여 和蘭及인도네시아國民黨兩側에 이 紛爭을 解決하라고 부르지지고잇다

先烈紀悼 追念文

主席 金九

二十三日에 開催된 先烈追念大會席上에서 朗讀한 臨時政府主席金九閣下의 追念文은 다음과 갓다

大韓民國廿七年十二月二十三日 臨時政府主席金九는 殉國先烈英靈의 압헤 告하나이다

우리國祖 荊棘을 開陳하시고 政敎을 베푸신뒤로 綿延함이 거의 五千年에 미치는 그동안 興廢의 故가 엇찌 한두번이리요만은 실상은 한族類로서의 代承이오 或外寇의 侵奪함이 잇섯다할지라도 그 地域서의 間國의 地位는 相當히 强北될것이다 이 一隅에 그처 相解古訛의 나려오는 統緖는 언제나 儼然하엿나니 우리몸소 當한바 變難이야말로 史上에서 보지못하든 初有의 慘이라 光武乙巳로비롯하야 丁未를 지나 庚戌에와서 드디여 言語 — 근히니 그 慘됨은 오히려 들재라 奇恥의 大辱이 이에 極함을 무엇으로 견디다 하리오

이러한 가운데 一道燦爛한 國光을 이르켜 이 民衆으로하여금 恥辱의 日에 矜負와 悲慘의 潮에 奮發을 곤힘없이 가까히 함이 과연누구의 주심이요

우리는 이에서 乙巳以後 殉國하신 先烈諸位를 宿懇間에 잇지못하나이다

그동안 日寇此土에서 陸梁함이 오래라 監이라 督이라하야 敗退하든날까지 江山民人을 彼는 彼의 占制下에 두엇더뭇이 알었을 줄아나 우리 先烈의 「피」로써 敵과 싸와온 거룩한 陣勢 四十一年의 日月을 貫徹하야 몸은 쓰러저도 魂은 나라를 놓지않고 숨은 끊어저도 뜻은 겨레와의 매이여 — 그 壯하고 매움을 말하진대 어느분의 最後 — 天泣地哀할 巨迹이아니시리요 끼에 絶하였거나 藥에 殞하였거나 다가튼 國家獨立勃勃한 柱幹의 雙手의 擊이나 一旅의 戰이나 모도가 光復達成의 熱烈한 邁進이요 域中에서 崎嶇하다가 猛志를 牢獄에 꿀엇거나 海外에 漂轉하면서 苦心을 虜鋒에 꿋마치엇거나 다 抗敵必死의 劇果한 決定이니 個人과 團體로 自殺과 被害가 不一한대로 내여뿜은 民族的芒稜은 일직이 間歇됨을 보지못한즉 이 「피」가 마르지아니하매 敵과 싸움이 수인적 없고 이 싸움이 수이지아니하매 此土 — 마침내 敵의 全據로 되 갓다 어르지 못할것이라 그럼으로 우리 過去 四十一年을 通틀어 日寇의 役이라 할지언정 하로하도 彼의 時代라 일커를수없음은 오직 殉國先烈들의 끼치신 「피」 香내가 항상 이곳의 主氣되여온 緣故이니 이 여러분 先烈이 아니런들 우리가 무엇으로써 圓滿上에 서(立)리요 三千里 土壤알알 그대로가니 여러분 熱血의 凝體입을 생각하면서 이땅을 드딤때 感恨, 新感이 가슴에 막혀 엇지할줄을 몰랏섯나이다 (中略)

己未以後는 우리의 運動이 가장 强하야지니만큼 萬歲소리에 應集하든 그때부터 農村 市場 敎會 그 學校 婦人 老年을 나물것업시 압해서 넘어진채 뒤에서 밀고 나와 血風血雨가 全土를 휩씨스니 古先民臨戰無退의 戒 — 이에 再興함을 이를지라 「피」 헛되히 싸히이지 안코 하늘이 民衷을 도라보사 今日 光復의 初曙를 國土에서 마지하게되엇나이다

언제나 殉烈의 先民은 有國의 楨幹이사라 工가운데도 우리의 過去를 생각하건대 先烈은 곳 國命이시니 往往히 一人의 「피」로 因하야 民族의 昭蘇함을 보게되니 어찌 徒言이리까 저 江戶의 推擊의 繼續的 壯圖 — 故國의 사람있음을 나라넘도 그러려니와 往者 上海에 倭寇의 方滋하든 攻勢, 友邦으로하여금 至恨을 먹음게하든때 우리 勇士一發이 고함을 진殲하야 擧國의 援施보다 오히려 지남이잇어 오리 獨立의 大計, 激浪가치 怒湧함을 엇게되엿나이다

에로부터 志士는 一死를 가볍게 여기나니 구라여 生을 捨하고 義를 取하신대 向하야 悲哀의 細情을 부치고저 아니하며 더욱이 모다 光復의 元功이신바에 무슨 遺恨이 있으리까마는 가튼 先烈이면서도 或顯著하야 天壤에 赫赫하기도하고 或湮滅하야 名字조차 무듬길이 없기도하니 前을 幸이아라하면 後 — 어찌 不幸이 아니리까 하물며 無人窮途에서 枯草우에 髑髏를 굴리여 鬼火 — 번뜻기고 鳥 「이」 飛할뿐으로 前은 且從하고 死後의 條한이가 만흠을 어찌하리오 섬사 이러키까지는 아니할지라도 軍行旅進하다가 成沒한이들은 누구며 幽鬱歷久하다가 瘦死한이들은 누구요 多數로 因하야 特著가 없는 거기에 日星과 共耀할 奇蹟이 만흐시러니 逝者! 아무리 渻然하다들 살어있는 우리야 어째 도라보아 슬프지아니하리요 나누라함은 오히려 私見이 아닌가하야 自慰코저하나 또섬허 하는바있으니 乙巳以後先烈의 보고자 하심이 光復이라 此身의 轉轉하는동안 同志로서 艱苦에 提攜하든이가 운데도 이미 先烈을 따러가신이 만커늘 이날을 어찌 우리만이 보며 더욱이 만드시든이는 멀어아득하고 그 跡을 뵈한우리 이 曙光을 바리니 이늣김을 또 어이하리요 우리國外에서 星霜을지나지오래라 그때는 生者를 또한 死路를 밟버 依倚하는배오 죽 先烈의 魂魄이매 거이 人鬼의 隔을 아젓더니 이제 故土에 돌어와 同胞民衆의 품에 안기니 와락 此身의 存遺함이 어찌그리 廓然함을 늣기나이다

入國하든 그날곳 紹枕을 드라랴한것이 오날에야 內務部主設과 國內諸人의 響應으로 追念하는 大會를 擧行하게되니 늣즈나 오히려 無已의 悃을 寄托함즉하되 우리 先烈께 바칠 馨香이 光復의 完成 即獨立의 告功에 있을뿐이어늘 아제 여기까지 遼함에는 아직 距離업지아니할세 靈前에 向하는 忸怩 자못무거우나 몃十年前 暗黑뿐이오 據要이업든 그때도 先烈은 꺽기지아니하섯으니 우리이제 垂成의 業에 獻身할것을 盟誓할것은 勿論이요 時 今昔이 있다할지라도 民是는 先烈의 遺緒로부터 나려와 依然할바니 우선現下를들어 先烈께告하려하며 여러분 在天하신英靈은 우리를爲하야 狄耿하실지니 그百折不撓하신 義氣 至純至潔하신高操 民我無間하신 誠心 雄猛卓特하신勇慨를 全國民으로하야금 效則하게하사 이로써 좃運을마지하야 우흐로 國祖弘益의 聖模를 重新하게하시며 아래로 三千萬 新運을 마추어 이루게하소서

社說

變革期와 文化

社會的文化的諸事情을 變改하는 契機로 異質文化의 一流通은 相當히 重要한 役割을 가지게 되는것이다 羅馬文化의 西歐에의 浸透와 文化의 東漸浸透 계루만的慣習의 羅馬帝國內의 感染 近代에잇어서의 西歐文化의 世界的傳播와 갓흔것은 그 顯著한 事例라 할것이다 이와갓흔 交流는 高度한 文化의 君臨이라고만 限定할수업는것으로 低度의 文化의 流入이잇게 되는것이며 그流入의 過程에 이서서 文化的混淆과 闇黑을 齎來하는 境遇도 잇게될것이다

二

過去三十六年間의 文化的諸事情은 音語文物風俗習慣의 全面에 亘하야 日本民族과의 不可避的近接이 齎來한文化的要素가 그 文化史的意義는 其論하고 우리文化에 浸透되엿음을 否認할必要도업거니와 이제解放을契機하야 歷史的變革期에 直面하게되엿고 直接的으로는 美、蘇文化의 展面的交流가密接히 約束될것이 豫想되는것이다 美國의 文化는 旣爲半世紀前以來로 基督敎를通하야 우리의 宗敎文化가 昂揚됨뿐아니라 一般的文化要素가 우리固有文化에 浸透됨이만헛음을 是認하게될이며 蘇聯文化도 大陸과의 連鎖的地緣과 思想的影響으로 우리文化의 內部的變容을 醱酵하고잇음도 事實일지나 이것은急激한 契機의 文化的變異라고는 할수업는것이다

三

歷史的 變革期에잇어 異民族異質文化가 固有文化에 影響함이 至大한것이니 文化的 交流가 急激한가운데서의 主體的 攝取가 必要한것은 말할것도 없다 우리의 歷史的變革은 物質的으로 精神的으로 生活樣式의 變容을 豫想하면서도 德操的評價로 固有文化의 育成을 省察하여야할것이며 固有文化의 主體的育成이없이 世界文化에의 貢獻은 期待할수업다는것을 認識하여야할것아니니 自我文化의 優越感을 固守할必要는 업스나 低俗한 文化의 流入을 警戒하지않으면 안될것이다

蘇 元山淸津 特別利權要求

美紙가 傳하는 重大報道

【뉴—욕廿二日發】國際紐育「뉴—스、위—크」紙는 十二月三日附로 各國에 關한 情報로 다음의 事實을 報道하엿다

一、美國勞働黨政府가 獨逸의 强力한 軍政을 하지 안는것은 結局獨逸을 再次列强속에 再起시키게 될것이다

二、蘇聯은 不遠間 北朝鮮 海岸에잇는 元山 淸津兩不凍港에 對한 特別權利를 要求하게될것이 豫想되는데 蘇聯이 太平洋의 此等出入口를 將來長期間 保持하게되면 極東亞細亞에잇서

蘇强要에 領土割讓固執하면 一戰도 不辭

土耳其悲壯한 決意

【倫敦廿三日發國際】第一次大戰後에 對希臘戰爭에서 陸軍司令官으로 活躍한 「칭—짐 칼베일」將軍은 土耳其議會에 臨席하야 對蘇强硬態度를 主張、다음과 같이 陳述하엿다

萬一 蘇聯이 어데까지든지 黑海沿岸의 土耳其領一萬平方哩의 割讓을 固執한다면 土耳其로서는 一戰을 加할박게 方途가없다

戰犯에 朝鮮人十三

【東京發朝鮮】日本共産黨外五個의 左翼團體에서 作成한 一千三百名의 戰犯名簿에는 日天皇、皇后、皇太后外에 精神異狀이란 梨本彦王을 除外한 全皇族男子와 陸海軍首腦、前閣僚、司法、警察樞密、貴衆兩院、財界、新聞界、作家、學者、女性指導者、勞働指導者、宗敎界等이 網羅되엇는데 그中에는 朝鮮人十三名도 끼어잇다고한다

英·美·蘇 外相會議大進展

콤뮤니케는 廿四日發表

【倫敦二十二日發共立】모스코—通信에 依하면 二十一日밤의 三國外相會議는 今回의 會議開催以來 가장 長時間을 要한 四時間에 걸치는 것이엿다 會議에 關한 콤무니케는 會議의 終了日이되는 크리스마스直前에 發表가 잇을것이라고 보고잇는데 本外相會議는 서로 至極히 順調롭게 進行되고잇는 模樣이며 또한 樂觀的 氣分이 濃厚한데 이것도 한가지는 스타린元帥의 모스코 歸還에 因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스타린元帥는 二十一日 六十六歲의 誕生日을 마지하엿다

英軍도 日本占領

不遠一旅吳港에上陸

【香港二十二日發AP國際】英太平洋艦隊司令長官 「프레자」大將은 日本占領에 參加하기爲하야 英國軍二個旅團을 一個月以內로 吳港에 上陸시킬 豫定이라고 二十二日 言明하엿다 吳港은 英海軍管下에 둘터인데 上陸部隊는 濠洲軍一個旅團及「뉴—지랜드」空軍으로 編成되엿다 그리고 「프레자」大將은 香港을 太平洋艦隊司令部所在地로 決定하엿다고 言明하엿다

蘇聯美國에 六十億弗借款?

【華盛頓發朝鮮】英、美借款協定이 波瀾끗테 成立되자 今番은 蘇聯側에서 또한 美國으로부터 約六十億弗의 借款을 希望하고잇다고한다 英斯科에서는 아즉 이 問題에 關하여 何等正式의 發表는 없으나 얼마前에 美國經濟使節團이 그곳을 訪問하여 스타린議長에게 이問題를 提起하엿을때 그는 非常한 興味를 보엿다한다

滿洲行政權國府에

【北平二十日發AP國際】東北行營外交特派員 蔣經國氏는 十八日滿洲最高經濟委員會委員長 張嘉璈氏와함께 十九日長春에서 南京에 到着하엿는데 同氏報告에 依하면 滿洲는 漸次蘇聯軍으로부터 國府行政機關에 移讓되고잇다

國共間에 休戰提議

【倫敦二十二日發國際】二十一日重慶來電에 依하면 中國共産軍首腦者와 中央政府間에 休戰이 提議되엿다한다 이提議는 近間開催될 中國國內紛爭의 克服을 圖謀하기爲한 會議에 先決問題이다 그러고 共産黨主席代表는 二十日의 會議에서 中國現代의 平和를 圖謀할 具體案을 提出한다고 言明하엿다 더욱히 蔣介石氏와 마—샬大使도 本會議에 出席할것이며 이보다 먼저 「웨데마이야」中將을 包含한 三人의 會合이 南京에서 開催되엿다

美, 다그26號의威力

全世界爆擊可能

【華盛頓二十一日UP發朝鮮】조세프、쥬재香大佐는 다그라스A26輕爆機로 日本을 十一次에 亘하야 爆擊한後에 世界를 一週하고 最近 美國에 도라왓다 이 飛行機는 한時間에 平均二百五十哩以上이다 그런데 同大佐는 이 新爆擊機는 美國에서 世界어느地點을 勿論하고 손쉽게 爆擊할 수있는 速力과 能力을 가지고잇다고 말하엿다

횡설수설

▼元山, 淸津兩不凍港의 特別利權을 蘇聯이 要求? 하리라고 外紙가 報道▼아직 眞僞도 未可知라 一笑에 부칠이 可當하나 너무도 聲張하야 못는것조차 不愉快▼帝政時代라면 如斯한 野望을 가질도 보암직하되▼侵略의 防波堤로 自任하는 自身의 世界政策이 먼저 容認할가가 疑問이오▼萬에一이라도 이런 要求가 잇다면 그때의 우리의 態度는 奈何오? 自明 又自明▼이 疆土는 三千萬의 피로서 防禦할뿐이니 土寸尺地도 他의 容喙는 斷乎不許▼于先 決意를 披瀝하야 이땅에 對한 云云을 封鎖已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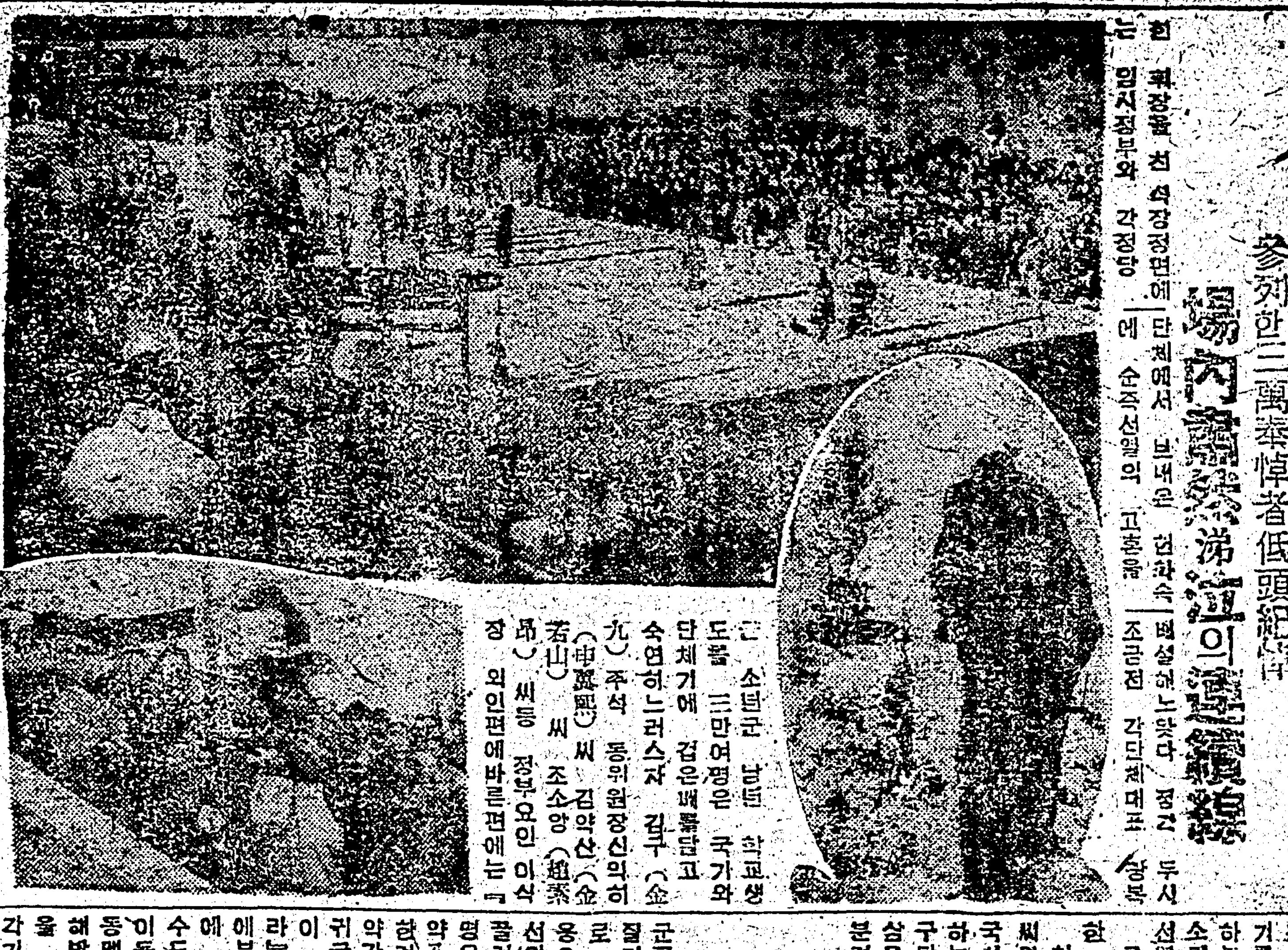
一日一詠

長白山에 旗를꽂고
豆滿江에 말씻기니
썩은 선배야
우리아니 사나희랴
엇더타 凌烟閣上에
뉘얼골을 그릴고
(古·金宗瑞)

投稿歡迎…一人一首限

祖國은爾今解放自由
在天의英靈、照鑑하소서
乙巳以後殉國의義血흘린先烈
昨日、擧行된先烈追念大會

조국의광복을 위하야 푸른피로서항거한 선열이 그몃분이런고 을사(乙巳)이후 四십一년간흐국의 이슬로사라진 분은고이준(李儁) 선생안중근(安重根) 열사외에수만위를헤이게되니 왜구가 물러간이제가신님들의 공각 더욱 간절한바이잇다 三一혁명이후 임시정부에서는세해를 마지할때마다순국선열을기도(紀禱)하여고혼의 명복을비러일후의정성을 면면하게 잇대여 오다가환희의날을마지함에 가신님—보자못할그지업시 온겨레의가삼에 복바처 오른다、이에 순국선열추념대회주의원회(殉國先烈追念大會委員會)에서는임시정부요원의입국을마저二십삼일하오서울훈련원에서 선열을우러러 추념하는모임을정정것울리엇다



句句斷腸의追念文
參列한二萬哀悼者低頭紀行
場內肅然、涕泣의連續

현 휘장울친 식장정면에 단체에서 보내온 헌화속에 배설해노핫다 정건 두시는 임시정부와 각정당 각단체대표 조공전에 순국선열의 고혼을 상복

그 소년군 남녀 학교생도들 三만여명은 국기와 단체기에 검은때를달고 숙연히느러스자 김구(金九)주석 동위원장신익희(申翼熙)씨 김약산(金若山)씨 조소앙(趙素昂)씨등 정부요인 이식장 외인편에바른편에는『하—지』중장대리로『쉬—프트』대좌를비롯하야 군정청외빈(外賓)이착석 약고、한단아래에는 악사들이안고 고충정공민영환(忠正公閔泳煥)씨의셋재아든님 민광식(閔光植)씨가유족석에 단정히안는다『이어 함태영(咸台永)씨사회로 개회가선언되자 주악의마추어 애국가합창는 검은 휘장다른 태극기를향하야 일동경례 찬식장 동편노피 번듯이하늘을쫄고 올려나오는중소리에 마추어三분동안선열을추모하는기도가잇고 고혼을붙으는듯한 유아한 아악의주악에 마추어헌화 정인보(鄭寅普)씨와 김구(金九)주석의국사의 위훈을 방불케하는듯 한 추념문은 구구단장 회동한사람의 가삼울어이는듯하 울분과분격심울자아내고 이어 신위원장의 추념사 이화여전(梨花女專)생의 추념가 각단체대표의추념문 울 김진태(金鎭泰)씨가 광독 하—지중장(代理)의례사(禮辭)가잇슨다음동유족대표민광식씨의답사에이어고혼울 유명으로어이고는아악에마추어 동네시경 가장상엄한가운데광복후 처음인 추념대회는필하엿다

◇寫眞—추념회전경、下左는遺族席、下右는焚香하는金九主席

閔忠正公三允 遺族代表答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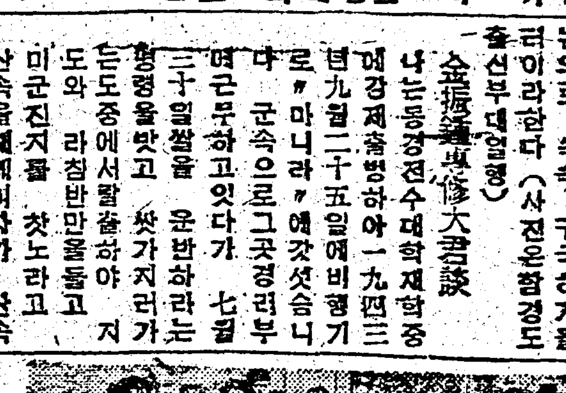
그어른들과함계오늘의 광복을보지못하니 매치는한은 비할데 업습니다 아프로는 우리의손으로완전한독립국가를 이루게에 죽음울맹서 하오며선열의뜻을이으려함니다 정중한 순국선열울 후렴함에잇서 한유족으로부름심을 넘어이자리에 나오는영광울 누리게되오니가슴이 멉커숏첩니다 생각뿐이 얼마어절듯 슯하과기하오면 이것이못두 조국해방의 딕택울시다 을사(乙巳)이후기우는 국운울 접으려다나라와함께 스러진선열의 크나큰 한을오늘에 우선풀이드지니 지상에선울 그어이아니 장쾌하오릿가

比島서二百名도歸還
强制出戰됏던우리壯丁

군국일본의 줄혈한 챗죽절미래 본의아닌 학병으로 지원병으로 또는 징용으로 일즉이 태평양전선의『비울빈』싸음터로끌려갓든 우리장정 수만명은 거의 희생이되고 약八백五十명가량이 생존한것이 판명되엇다 그중약간명은 이미 이달초에귀국하엿고 그중 二백명이 지난 十五일에『마니라』를출발하야 二十一일에부산에 상륙 二十三일에 오매불망튼 고국의수도 서울에 도착하엿다 이들일행은 시내조선규흥동맹의 따뜻한 알선으로해방된 서울에서 하로밤울 지내고 二十四일아침각기고향으로 떠나 꿈에그리든 고향의 부모똥형제들을 맛나게되엇는데 그중함경도출신(五十명)부대중 다음 양군은 그간의 쓰라린경험과 깃븜을다음갓치말하엿다 그리고 비치못하엿다

도에 남어잇는 잔류장정들도 배의형편이 허락되는대로 속속 귀국하게될터이라한다 (사진은함경도출신부대일행)

고향인함남신북청(新北靑)으로도라가는김진종(金振鍾)(二九)군은다음과가치말한다



金振鍾專修大君談

나는동경전수대학재학중에강제출병하야一九四三년九월二十五일에비행기로"마니라"에갓섯습니다 군속으로그곳경리부에근무하고잇다가 七월三十일쌀을 운반하라는명령을밧고 쌀가지러가는도중에서탈출하야 지도와 라침반만을들고 미군진지를 찻노라고 산속을헤매이다가 산속에서일본이 항복하엿다는기뿐소식을들엇습니다

劇團民藝復活

演劇理想의 大理念에 바치하고저 一切權力에의 拒否와藝術의 絕對自由를 主唱하며 過去朝鮮演劇史上에 不滅의足跡을 남긴『劇研』『中央舞臺』以來의 前衛同志로써 組織된 劇團『民藝』에서는 今十二月二十五日부터三十一日까지 中央劇場에서 上演하고저 不朽의名作『復活』을 金享鶴脚色으로 李光來演出下에 지금猛練習中이라는데 一般의期待가크다한다

朝鮮入國禁止
今後日人의一 日人들의歸還申請을全部却下

【東京二十三日UP發 朝聯】연합군사령부는 二十二일 일본정부에 대하여『중대한용무』가업는한일본인의 남부조선에 입국하는허가서(許可書)를발급하지안는다는뜻을 경고하엿다 이제것만흔일본인실업가들이 조선에귀환하겟다고허가를 청을 하엿스나 그들의『용무』는중대하다고 할수업서모다각하되엿다

新住宅萬戶
住宅營團서新築

해방후일인이 철퇴는하나 서방인들의 급격한증가와 해외전재동포들의 귀환아토 특히서울의주택난은 심해가고잇다 이주택난을 완화하려고 조선주택영단(朝鮮住宅營團)에서는군정청후원미태 더대책을강구중인데 우선명년도에 약一만호를 신축할계획을 세우고잇다한다 동영단리(李)이사장은 다음과가티말한다

최근 군정청으로부터 一만호를 신축하라는 지시를밧고잇는데 평준부러이다 우선착수전에장소와 설계는 방금전문가들의손으로 설계중인데 특히 주택계선에유의하야 널리 현상모집도할작정이며 축건재로는 현재 재고자료와 군정청의 원조를 어더 그부족을 극복코저한다 ……심으로 진행할방침인데 일반사회에서도 만흔원조를 해주기를 바란다

物資의日密出團束
美艦出動、密輸船取締

어선(漁船)은신고 등록하라—군정청 상공국 수산과에서는 방금각지방어업조합으로하여금 소할지방 소재어선의 신고등록을밧고잇는중이다 이등록에의하야 어선의소유권문제가 잇는경우는 해결하며 어구구입에우선적취급을 하는등 어업조장에 적극적편의를 도모하기로 되엇다 그리고 허가없이 화물을 일본으로보내거나 일본서 가저오는것은 조선인으로서도의에 어근날뿐더러 위법이된다는것을 특히선박종사자는 인식하여주의하여주기를바라고있다 이에 군정청에서는 밀항을제지하기위하야 미군감시선을 해상에 내보내여 밀항취체를 엄중히하고 물자와선박을압수하고잇다한다

少年軍陣容을强化
總裁에金九主席을推戴

지하에 뭇처어엇다가 八월十五일 해방이후로 급속히 재건되여 서울시내에만도 二만의대원을 포용하야 시가지청소 교통정리 강절도방지 등 여러가지 헌신적 활동을해오고잇는 조선소년군 총본부에서는 대세를더욱 확충강화하고저 이번 임시정부요인을 마지하여 즉 김구(金九)주석을 총재로 부주석 김규식(金奎植)박사를 부총재로 또한 이승만(李承晩)박사와 홍진(洪震)선생 김창숙(金昌淑)선생과 김상덕(金尙德)선생 등네분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선전부장 엄항섭(嚴恒燮)선생이 리사장으로 취임하게되엇는데 소년군 총본부의 진용은 다음과갓다

▲總裁 金九主席 ▲副總裁 金奎植副主席 ▲顧問 李承晩博士 洪震先生 金尙德先生 金昌淑先生 ▲理事長 嚴恒燮 ▲專務理事 金雄權(以下略)

嚴理事長談 금후소년군의 운영방침에 대하야 엄항섭리사장은 다음과가치말한다 우리소년군을 오늘과가치길러온 유지들을 존

水組을調査

三십八도이남각지 수리조합지역안의 수확고를조사하는한편 예산액 조합세결정을하기위하야 농상국토지개량과에서는 조사대를두대로나누어 작난十九일부터 二주일예정으로 각수리조합으로파견하엿다

運動競技
臨政歡迎마라손

陸上競技聯盟主催 冬季마라손大會는 一般六個團體 中學部五個校의 參加를보아 二十三日午後二時 서울市廳압出發로 豪華한幕을여러 金蘇鎭(아구)의 四十六分三十八秒로 優勝하얏는데 成績은다음과갓다

一着 金蘇鎭(아구) 四六分三十八 二着 徐潤和(아구) 四六分四十四 三着 李英濟(普專) 四八分〇八

第三高女開學式

전 일본인을 수용하엿든 시내 제三공립고등여학교는 二十二일오후一시에 정식개학식을 거행하엿다 재적생은 천二백명이고 교장에는 양재순(梁在順)씨가 취임햇다

『朝鮮文化』發刊

朝鮮文化社에서는 月刊『朝鮮文化』를 發刊하고 將來에『朝鮮文化叢書』를 刊行하겟는바 執筆者는各專門의大家를 網羅하고 隨時로 文化講演會도 開催한다고한다 事務所는 漢城市新堂町四〇七의一

◇曆 十二月二十四日(月曜日) 陰十一月二十日
◇日氣豫報 京城地方은北西風이불고 晴天이다
◇溫度 零下六度二分

오늘의방송
【夜】▲六・〇〇어린이크리스마스이부時間▲七・二〇音樂▲七・三〇國樂會音律部員▲後七・四五京畿歌謠崔貞植趙白爲▲八・〇〇獨唱・合唱과管絃樂▲九・〇〇時報・뉴—스▲九・四五音樂

휴지통

전등고장 수도고장에 전화까지 불통인데는수가 보통인테 번번한정전 요지옹의 줄을노리고서 강도 또한속출▲불꺼진것도 답답한테 전기를고치러왓스니 문을열라하야문을열어주면 총기를내대아고 강도로표변한다고▲돈득어라 어수선한 세모의거리에 불단속 문단속 흉기단속에 더욱힘써야하겟다▲해방된후 시정의시세는 평균三十배로 등귀되……고

謹告
弊社는今般軍政廳管理下에國內本支店各部運營을整備하야完全朝鮮人經營으로一般貨物保管及運送業務를實施하야業界에奉仕하오니過去와如히各別取扱으로不便이업게하겟사오니一層指導鞭撻下에만히利用하야주시기바람니다
西曆一九四五年十二月 日
서울市西大門區蓬萊町三丁目四一
海陸運送業 並倉庫業 株式會社 朝日組
代表電話本局②二一五六番
社長 金炳瑚 支配人 李
支店 仁川、釜山、永登浦

朝鮮의마음 尹白南著 卄五日發賣 定價拾貳圓
待望되는名著 常識國史 申鼎言著 第二版發賣中 定價拾圓
朝鮮獨立의緊急問題 三版發賣中 定價五圓
서울市黃金町一丁目一六八番地 啓蒙俱樂部出版部 電話本局五三一〇八・三五三番
空前絕後從來代의珍書 救恤國史 申鼎言著 一月中旬發賣豫約受付中
서울市鍾路一丁目 朝鮮救恤同盟本部 京城・分會 發賣

劇團 民藝
演劇大公演
톨스토이原作 金享鶴脚色
카추샤 (一名復活) 全五幕十一場
演出 李光來 裝置 蔡南仁
滿員御禮
25日부터(晝夜二回)中央劇場

國文타이프活字販賣
其他타이프活字一切販賣及 修理引受
地方特約店募集
서울鐘路三丁目六〇
興亞타이프活字製造所 電話光③八二四番

看板 裝飾 圖案
高級社交場 商業美術 室內裝飾 建築設計
黃金町三丁目六五 電本②四五二番
金星社

化粧品 藥 賣商
正元商事社
서울鍾路(3)三丁目四 電光③二五五三番

開業 朝鮮料理 春園
前貫仙跡 漢城市西四軒町
電東⑤一二七二〇〇의一
一般宴會席完備 自動車無料提供

絃樂器管樂器
樂器는無名樂器店으로・라디오・電蓄 修理引受
直營—附屬在庫豊富
서울市本町二丁目 無名樂器店 (前山口樂器店) 電本②七〇三番

朝鮮料理 朝鮮館
漢城市旭町二丁目九 電話②二四〇〇番
一般宴會席完備